이 자료는 9월 28일(목) 11:00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정례브리핑 모두 말씀

2006. 9. 28(목)

1.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배경 및 추진방향 / 1
2. 2007년도 세입예산안 / 5
3. 경상수지 동향 및 전망 / 7
4. 지역특구 활성화 추진 및 지역특구박람회 개최 / 11
5. FTA 추진현황 / 13
6. WEF 국가경쟁력 평가관련 / 17
7. 재경부 혁신워크샵 개최 / 21

재 정 경 제 부

1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배경 및 추진방향

※ 정부가 마련한 "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"의 배경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음

□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,
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
경제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음

○ 2004년을 기점으로 창업과 공장설립이 감소하고 있으며,

-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직접투자 유입은 감소하고 있음

○ 이러한 경제활력의 둔화는 토지·인력 등 핵심적 생산요소의 고비용 구조와 공급애로 등 구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

- 예를들어, 대도시의 공장용지 가격은 이미 평당 200만원을 넘었고(서울의 경우 파리의 9배), 인건비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

- 이러한 고지가에 더하여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은 물론 생산인력 확보도 어려우며, 이를 보완할 외국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

□ 그동안, 참여정부 출범이후 다각적인 기업환경개선 및 규제개혁 노력을 추진하여 왔음

○ 그러나,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

□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, 향후 직면하게 될 고령화·저출산 등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

○ 구조적 요인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와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

□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"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"을 마련하였음

○ 재경부·KDI가 공동으로 6,000여개 중소기업 투자애로에 대한 광범위한 심층조사를 실시(06.2~8월)하였으며

- 관계부처 공동으로 5대 권역별 현장점검단을 구성(06.8~9월)하여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를 청취하였음

○ 또한, 부총리 주재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(9.25)를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,

- 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(9.25)에서 금융기관의 기술성·사업성 위주의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

□ 이번 종합대책은 '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'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, 5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책개선을 추진하였음

①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

②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산요소 공급대책을 마련하며

③ 기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

④ 고비용구조를 상쇄할 수 있도록 법률·세제·금융·물류 등 핵심 경영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한편,

⑤ 지자체의 자발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

□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마련하였음

○ 69개 단기과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로 금년말까지 시행할 것이며,

○ 30개 중기과제는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07년말까지,

○ 나머지 16개 과제는 장기과제로 참여정부 임기내에 구체적 방안마련과 입법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음

□ 앞으로도, 중소기업 · 지방자치단체 ·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고

○ 적극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기업환경개선 기조를 유지할 예정임

2 2007년도 세입예산안

※ 다음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

□ **2006년 총국세 규모는 138조 272억원**으로 전망되며, **2005년 국세실적**(127조 4,657억원) 대비 **8.3%**(10조 5,615억원)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○ 2006년 국세증가율 8.3%는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임

* 총국세 증가율 : ('02) 8.5% → ('03) 10.3% → ('04) 2.7% → ('05) 8.2%→ ('06e) 8.3%

* '04년도의 경우 내구재 소비가 줄고(△4.7%), 민간소비가 위축(△0.3%)되는 등 내수침체에 따라 국세증가율이 2.7%증가에 그침

□ 주요 세목별로는

○ 실가 과세 확대에 따라 **양도소득세가 2.6조원**(58.4%) 증가하고, 임금상승 및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**근로소득세가 1.8조원**(17.4%) 증가하는 등 **소득세가 5.3조원**(21.7%)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

○ **경제 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**에 따라 **부가가치세가 2.0조원**(5.5%)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

○ **법인세율 인하**(2%p)에 따라 **법인세는 △0.7조원**(△2.4%)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
□ 2007년 국세세입 예산(안)은 148조 1,211억원으로 2006년 국세수입 전망(138조 272억원)대비 7.3%(10조 939억원)증가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은 2006년 국세증가율(8.3%)에 비해 낮은 수준임

□ 주요 세목별로는

○ 임금상승 및 고용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13.0% 증가하고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11.9% 증가하는 등 소득세가 10.1%(3조 251억원)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

○ 민간소비(4.2%) 및 수입 증가(10.1%)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8.4%(3조 2,053억원)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○ 법인세의 경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신고분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리 상승에 따른 원천분이 증가하여 5.9%(1조 7,125억원)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* 회사채 금리 상승률(%) : ('05) 4.7 → ('06) 5.4 → ('07) 5.5

□ 조세부담률은 2006년에 20.7%(전망)로 지난해(20.3%, 잠정)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'07년에는 20.56%(전망)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

* OECD평균 조세부담률 : 26.8% ('03년 기준)

3 경상수지 동향 및 전망

□ 어제 발표된 8월 경상수지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음

[경상수지 동향]

□ 8월 경상수지는 5.1억불 적자를 시현, 8월까지 누적 적자는 13.3억불을 기록하였음

억불	05년				06년			
	6월	7월	8월	1~8월	6월	7월	8월	1~8월
▪ 경상수지	22.4	14.5	△4.9	94.4	9.4	△3.9	△5.1	△13.3
- 상품수지	37.0	31.7	15.9	225.5	27.1	16.2	15.7	158.3
- 서비스수지	△11.2	△14.7	△18.2	△95.3	△11.8	△17.4	△20.9	△127.1
- 소득수지	△1.2	△0.7	△0.5	△19.6	△1.6	0.4	3.1	△17.7
- 경상이전수지	△2.2	△1.9	△2.1	△16.2	△4.4	△3.1	△3.1	△26.8

□ 부문별로 보면, 우선 상품수지의 경우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, 원유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흑자폭이 축소되었음

* 수출(%) : (06.3)12.1→(4)11.9→(5)20.7→(6)17.9→(7)11.4→(8)17.6
* 원유수입(%) : (06.3)14.0→(4)42.0→(5)52.7→(6)37.9→(7)37.9→(8)43.8

□ 한편, 서비스수지는 **20.9억불 적자로 7월(17.4억불)보다 적자폭이 늘어났음**

○ 이는 여름철 해외여행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여행수지가 13.8억불의 적자를 보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

* 내국인출국(천명) : (05.6)864→(7)1,021→(8)1,069, (06.6)916→(7)1,099→(8)1,140
증감율(전년비, %) : 21.3 13.8 14.9 6.0 7.6 6.6

(억불)	05.6	7	8	1~8	06.6	7	8	1~8
▪ 서비스수지	△11.2	△14.7	△18.2	△95.3	△11.8	△17.4	△20.9	△127.1
- 운수수지	3.4	2.1	2.6	25.6	3.2	1.8	2.6	13.1
- 여행수지	△8.9	△10.1	△11.0	△66.3	△10.5	△12.4	△13.8	△84.1
<일반여행>	△6.4	△7.0	△6.9	△43.8	△6.9	△8.5	△8.7	△54.8
<유학연수>	△2.5	△3.1	△4.1	△22.5	△3.6	△3.8	△5.1	△29.3
- 특허권 등 사용료	△1.3	△1.3	△4.3	△21.0	△1.7	△2.1	△4.6	△20.3
- 사업서비스수지	△5.1	△6.6	△7.4	△41.5	△4.2	△5.5	△6.1	△41.8

[평가 및 향후 전망]

□ 7~8월 2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, 7월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**적자추세로의 전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**하고 있음

○ 자동차 파업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, 원유 도입물량이 추세치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불규칙 요인이 작용한 면이 있고

* 산자부는 기아, 쌍용차 등의 파업으로 8월에도 3억불 내외의 자동차 수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
* 원유도입량(%) : (06.5)12.8→(6)3.3→(7)8.3→(8)15.7, (06.1~8)7.1

○ 여름휴가철 등 계절적인 요인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
* 계절적으로 8월에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연중 가장 큰 수준을 나타냄

○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어 계절조정 경상수지는 8월에 8.0억불 흑자를 기록하였음

□ 그러나, 9월에는 통관수출입차가 확대되고, 서비스수지적자폭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**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**

* 9.1~20일 수출입 : (수출) 172억불, 25.3% (수입) 182억불, 27.7%

○ 불확실성은 있으나, 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과거 추세 등을 감안할 때 10월 이후에도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**연간으로는 소폭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**하고 있음

참고 서비스수지표

(백만불)

	02	03	04	05	05.8	06.8	%	05.1~8	06.1~8	%
서 비 스 수 지	-8,197.5	-7,424.2	-8,046.1	-13,092.2	-1,820.0	-2,087.3	14.7	-9,528.8	-12,706.4	33.3
수 입	28,387.7	32,956.5	41,881.5	45,374.6	3,792.4	4,460.9	17.6	29,478.8	32,939.9	11.7
지 급	36,585.2	40,380.7	49,927.6	58,466.8	5,612.4	6,548.2	16.7	39,007.6	45,646.3	17.0
· 여 행	-4,528.8	-4,744.6	-6,281.2	-9,654.1	-1,104.4	-1,384.6	25.4	-6,629.6	-8,413.5	26.9
수 입	5,935.7	5,358.2	6,069.0	5,660.0	523.7	483.1	-7.8	3,653.1	3,542.1	-3.0
지 급	10,464.5	10,102.8	12,350.2	15,314.1	1,628.1	1,867.7	14.7	10,282.7	11,955.6	16.3
< 일반여행 >	-3,119.1	-2,904.7	-3,803.3	-6,292.9	-694.1	-869.7	25.3	-4,380.5	-5,479.1	25.1
수 입	5,918.8	5,343.4	6,053.1	5,649.8	522.7	478.1	-8.5	3,647.7	3,526.6	-3.3
지 급	9,037.9	8,248.1	9,856.4	11,942.7	1,216.8	1,347.8	10.8	8,028.2	9,005.7	12.2
< 유학·연수 >	-1,409.7	-1,839.9	-2,477.9	-3,361.2	-410.3	-514.9	25.5	-2,249.1	-2,934.4	30.5
수 입	16.9	14.8	15.9	10.2	1.0	5.0	400.0	5.4	15.5	187.0
지 급	1,426.6	1,854.7	2,493.8	3,371.4	411.3	519.9	26.4	2,254.5	2,949.9	30.8
· 운 수	1,914.5	3,566.8	4,874.6	3,917.7	262.2	255.8	-2.4	2,562.9	1,314.3	-48.7
수 입	13,215.5	17,179.8	22,529.4	23,883.7	1,941.6	2,248.1	15.8	16,256.7	16,218.3	-0.2
지 급	11,301.0	13,613.0	17,654.8	19,966.0	1,679.4	1,992.3	18.6	13,693.8	14,904.0	8.8
· 사업 서비스	-3,601.8	-4,362.1	-5,037.4	-6,153.6	-738.4	-608.9	-17.5	-4,151.6	-4,177.6	0.6
수 입	6,005.5	6,687.3	8,125.1	9,726.9	811.4	1,099.5	35.5	5,789.0	8,339.1	44.1
지 급	9,607.3	11,049.4	13,162.5	15,880.5	1,549.8	1,708.4	10.2	9,940.6	12,516.7	25.9
· 특허권등 사용료	-2,166.9	-2,258.8	-2,584.8	-2,571.0	-434.9	-463.3	6.5	-2,098.6	-2,034.0	-3.1
수 입	835.3	1,311.2	1,861.1	1,826.8	116.5	189.6	62.7	1,142.5	1,129.5	-1.1
지 급	3,002.2	3,570.0	4,445.9	4,397.8	551.4	652.9	18.4	3,241.1	3,163.5	-2.4
· 금융·보험서비스	91.7	241.1	634.1	1,187.5	161.5	83.7	-48.2	681.9	975.5	43.1
수 입	731.8	732.5	1,221.8	2,002.8	225.6	213.6	-5.3	1,189.6	1,971.1	65.7
지 급	640.1	491.4	587.7	815.3	64.1	129.9	102.7	507.7	995.6	96.1
· 기타 서비스*	93.8	133.4	348.6	181.3	34.0	30.0	-11.8	106.2	-371.1	-449.4
수 입	1,663.9	1,687.5	2,075.1	2,274.4	173.6	227.0	30.8	1,447.9	1,739.8	20.2
지 급	1,570.1	1,554.1	1,726.5	2,093.1	139.6	197.0	41.1	1,341.7	2,110.9	57.3

* 주 : 개인 · 문화 · 오락, 통신, 건설, 컴퓨터 및 정보, 정부 서비스를 포함

4 지역특구 활성화 추진 및 지역특구박람회개최

□ 지역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준비해 온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**9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**하였고 오는 **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**

○ 그 주요내용은 지역특구에 적용될 **규제특례를 확대**(69건 → 97건)하고 그 **지정절차를 간소화**하는 것임

※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 (06.9.26자 배포)

□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더욱 **다양한 지역특화사업**이 가능해졌고 특구의 **신청과 지정절차도 용이**하게 되어 지역특화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

□ 정부는 법개정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

○ 금년 하반기중에 **시행령 개정**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고 **전국순회 특구제도 설명회** 등을 통해 지자체에 홍보할 계획임

□ 전국의 지역특구가 한자리에 모이는 「지역특구 박람회」가 오늘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음(개막식 11:00)

○ 이번 행사는 우리부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(사상 처음으로)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

○ 세부행사 내용으로는 30여개의 특구전시관 설치, 우수사례 발표회, 특산물 소개, 학술·문화 행사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음

□ 현재 부총리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여 우수특구지자체 및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

○ 축사를 통해 특구사업과 정부 예산지원과의 연계,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 내실화,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배정 등 지역특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시고

○ 향후 교육·의료·복지 등 보다 다양한 특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힐 예정임

5 FTA 추진 현황

□ 10.23~27일간 개최되는 한·미 FTA 제4차 협상에 대비하여 관계부처간은 물론 유관기관·전문가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

① 먼저, 한·미 FTA 협상에 대한 민간 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금년 4월 출범한 「한·미 FTA 민간대책위원회」의 제2차 회의를 금일 7:30 개최하였음

* 경제 4단체(무역협회, 전경련, 상의, 중기협) 및 농협·은행연합회 회장을 공동의장으로 관련단체 임원, 연구소, 학계 전문가로 구성

○ 오늘 회의에서는 한·미 FTA 제3차 협상결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,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음

② 또한, 지난 8월 국민 의견수렴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한 「한·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」의 제2차 회의도 내일 개최될 예정임

○ 금번 회의에서는 한·미 FTA에 대한 지역별·업종별 동향과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임

③ 국회「한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」(국회 특위) 제8차 회의 역시 내일(10시) 개최되어 농업분야 협상 방향 및 국내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

◈ 韓-美 FTA 협상과 함께 **이번달부터 여타 FTA 협상도 차근차근 진행**되고 있는 바,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음

< 韓-ASEAN FTA >

□ 지난주(9.18~9.22)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韓-ASEAN FTA **제14차 협상**이 개최되었음

○ 이번 협상은 **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정문안**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,

서비스/투자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음

○ 한편, 양측은 지난 8월 서명한 **상품협정이 '07.1.1까지**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는 바,

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**국회에 비준동의**를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

□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**제15차 협상**은 10.31~11.3, 브루나이에서 개최될 예정임

< 韓-캐나다 FTA >

□ 이번주(9.25~9.28)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韓-캐나다 **제7차 협상**이 개최되고 있음

○ 현재 **상품, 서비스, 투자, 노동 등 분과별로 양허안·유보안에 대한 협상**과 아울러, **통합협정문 축조심의** 작업이 진행중임

○ 특히,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**상품 분야**에 있어 **제2차 양허안**(offer)을 교환하는 한편, **서비스/투자 유보안의 상호 관심분야**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

< 韓-EU FTA >

□ 어제까지(9.26~9.27)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韓-EU FTA **제2차 예비협의**가 개최되었음

○ 이번 예비협의에서는 지난 제1차 예비협의(7.19~7.20)에 이어 **세부 분야별로 양측의 기대수준을 확인**하고, 양측이 각각 **과거에 체결한 FTA 협정문의 내용을 비교**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

* 제1차 예비협의 논의 분야
: 서비스, 비관세장벽, 무역구제, 정부조달, 위생 및 식품위생
제2차 예비협의 논의 분야
: 상품/원산지/통관절차, 투자, 지재권, 분쟁해결, 경쟁, 환경, 노동

□ 이번 제2차 예비협의를 끝으로, **EU측이 10월중 FTA 대상국을 선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**

○ 우리측도 韓-EU FTA 추진에 대비, 제조업·서비스·농업 등 **분야별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** 등 절차를 이행한 후,

○ EU측과의 협의를 거쳐 **적절한 시점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도록** 준비해 나가겠음

< 韓-인도 CEPA >

□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(10.10~10.13) 서울(외교안보연구원)에서 韓-인도 CEPA **제4차 협상**이 개최될 예정임

○ 이번 협상에서는 **상품 자유화 modality, 서비스/투자 자유화 방식, 원산지 일반기준** 등에 대해 양측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음

○ 인도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감안시, **당초 목표('07년말)보다 앞서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**

◈ 되풀이하여 말씀드리지만, 정부는 대내외에 이미 천명한 대로 **"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"**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감으로써 FTA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상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

6 WEF 국가경쟁력 평가관련

□ 다음으로, 어제 발표된 WEF(World Economic Forum)의 **국가경쟁력 평가결과**에 대해 말씀드리겠음

□ 세계 12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06년 종합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(19위)에서 **5단계 하락한 24위**를 기록하였음

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

00	01	02	03	04	05	06
28	23	21	18	29	19	24

* 04년까지는 Growth Competitiveness Index기준, 05년이후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기준

□ 주요 항목별로 보면

○ **거시경제환경(13위), 기업혁신(15위), 과학기술수준(18위) 등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등 기초여건이 양호**하고, 정보통신부문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**잠재력이 크다고 평가**하였음

○ 다만, 복잡한 창업절차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, 민간부문의 지배구조 문제 등이 국가경쟁력 개선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

* 가장 큰 약점으로 높은 농업정책 비용, 창업에 있어서의 지나친 관료적인 절차, 비협조적인 노사간 관계 등을 지적

○ 특히,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정책 개혁, 유연한 노동시장 확립,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
□ WEF의 이번 평가 결과에 정책운영상 참고할 대목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, **그 해석에 있어 유의할 필요**가 있다고 봄

□ 첫째, **평가방식의 개편으로 설문조사 비중이 상승**(60%→73.3%)하면서 과거 WEF 평가와 달리 **설문항목에 의해 순위가 크게 좌우되었으며**

○ 우리나라의 경우 하락항목 71개중 77%인 55개가 **설문조사 항목으로 설문지표가 순위하락을 주도**한 측면이 있음

상승, 하락 항목 현황(개수)

	항목수		상승		하락		기타
	통계	설문	통계	설문	통계	설문	통계
· 기본요인	13	23	5	4	6	19	2
- 제도적 요인	0	15	0	2	0	13	0
- 인프라	1	5	1	1	0	4	0
- 거시경제	6	0	1	0	3	0	2
- 보건 및 초등교육	6	3	3	1	3	2	0
· 효율성 증진	10	28	0	3	8	25	2
- 고등교육 및 직장훈련	2	5	0	1	1	4	1
- 시장효율성	5	19	0	2	4	17	1
- 과학기술수준	3	4	0	0	3	4	0
· 기업혁신 및 성숙도	1	15	1	2	0	13	0
- 기업활동 성숙도	0	8	0	0	0	8	0
- 기업혁신	1	7	1	2	0	5	0
합 계	24	66	6	9	14	57	4

* 변동이 없거나 순위가 없는 경우

○ 이러한 평가방식의 전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, 프랑스, 중국 등 **GDP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에게는 불리**하게 작용한 반면

- 스위스, 핀란드 스웨덴 등 **소규모 경제** 국가에게는 **유리하게 작용**한 것으로 보임

○ 더욱이, 우리의 경우 **설문조사 시점**(1~3월)도 설문조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

- 당시 고유가와 환율급락 등 대외 불안요인과 함께

국가채무논쟁, 양극화, 기업로비자금관련 회계투명성 문제 등 당시 부정적인 국내환경이 조사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

* 04년에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설문결과에 따라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1단계 하락한 바 있음

□ 둘째, **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경쟁력 지표로 불합리한 측면**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

○ 예를 들어 WEF는 **실질실효환율 절상을 경쟁력 악화요인**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나, 환율절상이 우리나라 **경제기초여건의 강화와 환율정책의 신축성** 등의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

- 실제로 금년 4월 발표된 IMD 평가에서는 환율정책이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

* IMD는 환율정책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(39 → 36위)

○ 또한,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보다는 외국인투자에 의한 신기술·유입효과(95위)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**외국인 투자자체의 경쟁력 기여효과**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

* IMD의 외국인직접투자 한국 순위 : 19위

□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의 순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**우리가 부족한 분야를 점검하고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활용**해 나가고자 함

○ 앞으로도 **개방과 규제완화,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**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

○ 기업인들의 인식이 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

- **기업인들 그리고 시장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**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**불합리한 애로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**해 나가겠음

7 재경부 혁신워크샵 개최

□ 재정경제부는 9.29(금) 사무관 이상 전 직원이 참석하여 '재경부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방안'이라는 주제로 **혁신 워크샵을 개최**할 계획임

○ 이번 행사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**내·외부 인사 토론회**와 함께, **재경부 혁신 BP대회, 산하기관과의 혁신 한마당, 외부강사 초청 강연**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임

* 행사 일정 별첨 (토론회 자료는 추후 배포 예정)

<새로운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>

□ 토론회에서는 외부용역과 직원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'새로운 거버넌스 구축방안'을 발표하고, **내·외부 인사로 구성된 패널들간의 토론**이 있을 예정임

○ 이날 발표되는 「재경부 거버넌스 개선방안」은 **5개월간 외부용역결과**를 바탕으로 **5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**하여 도출된 것으로,

- 재경부가 앞으로 **경제정책의 중심**에 서기위해서는 국민, 국회, 언론 등 **정책고객과 거의 실시간 의사소통**이 이루어지고, 의사결정과정에서 **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**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

- **회의제 운영의 선진화, Knowledge Atlas 구축, 정보공개·공유 시스템 보강, 자발적 경력관리제** 등의 방법을 제시할 예정임

*①회의제 운영 선진화: 자료 사전배포, 회의록작성, 회의정보 공개 확대 등
②Knowledge Atlas: 내외부 전문가 및 정책자료 소재에 대한 지식지도 작성
③정보공개·공유 강화: 문서보안등급 완화, '보안일몰제(가칭)' 도입 등
④자발적 경력관리제도: 주요보직국장의 경력경로를 분석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직원이 스스로 경력·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

<재경부 혁신 BP 대회>

□ 재경부 혁신 BP (Best Practice) 대회에서는 실국별로 **8개 정책혁신사례**에 대해 발표하고 심사위원 최종 심사를 거쳐 **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임**

* (8개 정책혁신사례)
①자금세탁분석기능 고도화(FIU), ②세계일류금융시스템구축(금정국)
③근로장려세제 (조세정책국), ④환경친화적인 첨단국제도시 개발(경자단)
⑤맞춤형 국제협력 모델(경협국), ⑥공적자금회수 극대화(공자위)
⑦금융강국으로서의 한국(국금국), ⑧정부계약제도 민원업무 개선 (국고국)

<산하기관과의 혁신 한마당>

□ 산하기관 혁신 한마당 행사에서는 경제 부총리와 10개 산하기관장간에 **혁신성과협약서를 체결**하고 **산하기관 혁신우수사례에 대한 발표**가 있을 예정임

* 혁신우수사례 발표기관
① 기업은행 (IBK Pro-Way, IBK Pro-Coach, 자기혁신 프로그램)
② 수출입은행(전직원 참여에 의한 자율 경영혁신)
③ 신용보증기금(열린 신보참여위원회 및 보증업무 디지털화)

□ 재정경제부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**민간과의 파트너쉽·참여** 등 **새로운 거버넌스를 구현**하기 위한 직원들의 결의를 다지고,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**경제정책 중심부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임**